

1989 7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교회학교 유년부)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사도행전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문학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몇 사람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룬 행전(Acts)이다. 중심은 사도들의 사상이나 교훈을 다루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사도들의 행전에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만 고찰하지 않고 오고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구속사(Heilsgeschichte) 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단 순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인류를 구원하는 지상의 기관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본래 교회의 재 모습을 찾아보아야 한다.

사도행전은 초대 그리스도교회의 성립과 조직, 발전상을 정확하게 보도한 원시 그리스도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의 신앙을 확고히 하려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으나 (눅 1 : 4) 그 외에도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질서 문란, 황제에 대한 불충성)에 대한 변증(17 : 17이하, 18 : 13 이하), 성령의 인격과 역사를 기록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1-12장은 베드로 행전이요 13-18장은 바울 행전이다.

7월의 기도 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기름부어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교역자·장로)을 위하여
3. 시온성 대행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4. 교회와 교회학교가 배가되도록
5. 7월11-20일에 있을 로잔대회를 위한 이종윤 목사님의 여정을 위하여
6. 맥추 감사절에 풍성한 예배를 위하여
7. 교육·선교·구제가 풍성케 되도록

※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새벽강단 메시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9 : 1)

죄, 죽음, 가치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박사는 인간문화의 발달과정은 곧 한 개인의 발달과정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렸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청년시절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 가치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고대사는 죽음의 문제로 씨름했고 중세기에 가면 종교문제,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고 근대사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의미의 문제, 가치의 문제, 보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우상화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 그의 일생도 삼등분할 수 있는데 자기중심기, 자아붕괴기, 자아탄생기입니다. 자기중심기에 속한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과신을 하는 사람들로 자기를 우상화하여 종교따위는 필요가 없고 있다면 악세사리나 호신용에 불과합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편견과 자기주장과 자기감정에 팽창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야말로 명색이 종교인이요 지성인이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당시의 세도가인 대제사장의 추천서나 받아들고 의기충천해서 힘없는 선민을 마구 토벌하는 비열한 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대적자되고 자기확대자되어 자기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과신, 자기도취, 자기고집으로 팽창되어 있는 이 자리가 매우 위험한 자리이며 불행한 자리입니다.

****** 자신의 건강, 아름다움을 뽐내며 문벌과 재산을 높이고 자기의 지위에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까.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자기 기호에 맞으면 선으로,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악으로 치부합니다. 자기중심기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기과신, 도취, 고집으로 뭉친 시기는 복음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도취되어 과신과 고집에 응어리져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깨 주시옵소서. 이종윤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 여러 교역자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주일) 자아붕괴기

찬송 431 성경, 행 9 : 3 - 9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9 : 9)

급습한 빛 사울은 자기 중심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습한 강렬한 빛에 사울은 길거리에서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안하무인격인 인간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간 큰 충격이 아니고는 가 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격을 받고 사울은 산산조각 이 났던 것입니다.

무너진 바벨탑 자기가 무너지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니다(히12 : 6). 사울은 큰 빛을 보는 순간 실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의 손을 잡고 부축을 받으며 처참 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살기등등, 자신만만했던 자리에 있던 그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언제나 강한 사람이 쉽게 무너집니 다. 휘어지는 나무는 꺾기가 어렵지만 강한 나무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없다' 는 격언은 처녀 에게 사용하지 말고 전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교만의 바벨 탑은 무너져야 됩니다. 바벨탑은 집합주의와 공명주의의 대 명사입니다. 인간의 그룹을 형성하여 사람의 힘을 모으므로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바벨탑은 무너져야 됩니다. 자신의 탑 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없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길이 아름답고 바른 길 같으나 사망 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무력함, 곤고함, 실패의 걸음, 자기한계 상황에 부딪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팔호밖의 버린 자식이 아니라 아 직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들이라는 확증입니다. 세상만 보 딴 눈이 실명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기과 실보다는 자기붕괴의 시간이 더 위대한 시간인 것을 인지합시 다. 아직도 자기가 무너지지 못했다면, 아직도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다면 새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회 심의 경험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 쉬 무너지지 않을 때는 강한 충격을 가해서라도 아집과 교만이 무너 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이 실명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깨안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영광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파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전파하니」 (9 : 20)

옛사람 사울의 자아가 붕괴되는 시간은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시기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사람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두가지 사실이 커다랗게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고집과 낡은 습관에 가득찬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풍습이 얼마나 완고한지 쉽사리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는 말고'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년만에 졸업을 하게 되니 여간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기 붕괴의 고비를 넘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심 이전의 삶은 실패한 걸음이었든 성공작이었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전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새사람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새사람 거듭난 사람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새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임하여야 맺혀집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일 뿐입니다.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결심이 오는 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 아집과 자기고집, 자기주장이 많습니까, 옛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습관도 버립니다. 고집도 버립니다. 새순이 돋듯 연하고 아름다운 새자아가 탄생되어야 합니다. 말도 부드럽게, 일에는 정성을 다하여, 사람을 대하여는 진지하게, 주의 종들에게는 정중히 대합니다. 참신한 인상을 항상 가집시다.

기도 '날마다 죽노라' 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처단케 하시고 새사람이 승하게 하옵소서. 제직들에게 은혜를 입히시사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전도하니」(9 : 20)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박해자, 핍박자, 하나님의 은혜의 배신자 사울이 많은 사람 가운데 참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변모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의 활동무대는 평범한 곳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박해하던 곳이었요 박해하기 위해 칼을 들고 쫓아가던 곳, 다메섹 도상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약점과 허물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는 매우 힘든 법인데 이제 사울은 자기가 원수 노릇하던 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쫓아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가 풀린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때를 기다리는 것도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즉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사울의 전도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논리입니다. '이분 그리고 이분 만이' (영어성경)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령한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증인(eye witness 목격자)으로서 전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만가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은 내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하를 바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치는 것이 더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 우리 가족과 친구 사운데 추수하는 곡식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야 할 들판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없습니까. 전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전도받을 사람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도록 기도한 후에야 입을 열고 손을 뻗쳐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귀한 것 다 바치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바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치게 하옵소서. 70인 전도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라...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9 : 21-22)

경이 사울의 전도를 받은 유대인들의 첫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박해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기독교 전도자로 변신한 사울을 보고 모두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의 개종사실에 대해 놀랐습니다. 또한 그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굴복 두번째 반응은 굴복이었습니다(22절).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얼마나 진실하게 전했는지 그를 통하여 역사하므로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기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반응은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자는 의인도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을 용납할만큼 세상은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더러우면서도 더러운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의인을 용납할만큼 성결하지 못한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이 더러우니까 의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요 노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도한다는 이 유때문에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나의 변화를 보고 세상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바로 하여 교회로서의 책임을 바로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기에 뿔뿔미지근하고 적당히 자기들이나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고 있기에 세상이 교회에 주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은 희생과 결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는 자와 굴복하는 자가 많게 하시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죽음도 사망치 않게 하옵소서. 무서마다 열심이 특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충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목) 변화된 사울

찬송518 성경, 행 9 : 26-30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9 : 26)

미운 털 의기충천하고 자신만만했던 사울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운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요 옛친구인 바리새인과 제사장 족속들은 사울의 오늘이 싫어졌습니다. 믿고 그를 뽑아 기독교인 잔해자로 도장찍어 보내었더니 적의편에 가담되어 변절자가 되었으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잔악한 기독교도의 박해자로서 사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고 학살을 당했으니 그가 개종했다고 해도 반갑거나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된 과정과 내용과 사울의 전도활동을 소상히 알리므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세상 초월 새사람이 된 사울의 자세는 세상에 대해 초연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기웃거리지 않았고 파당을 짓거나 권력에 아부하며 출세를 그리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사람은 옛것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닭아쥐도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오해를 받고 제사장 바리새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했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는 담대했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세상을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까? 반대편 세력도 너무 의식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했다면 연연하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 아직도 옛것에 사로잡혀 연연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세상을 초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입히시사 고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잃지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9 : 29)

분토처럼 바울은 매우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오만하거나 무례하거나 고집스럽거나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훌륭한 학문, 가장 훌륭한 가문, 그것들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분토는 화장실에 버린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붙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분토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교회의 혁신 바울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교회에 나타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려 했더니 온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앞에 받은 큰 복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회로 선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신앙확립을 말합니다. 신앙고백의 정확성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바로 고백하면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조직이 좋아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역사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말씀의 선포가 성경적이고, 말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루어질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입니다. 내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분토처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는 가치관이 정립된 자라야 가능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각오는 교회를 평안히 하고 든든히 서가게 합니다. 조직보다 제도보다 전통과 역사보다 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오만과 불손을 버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며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각오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사 말씀을 바로 가르쳐 천국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9 : 31)

주를 경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전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지나 않을까, 주님이 반대하지는 않을까 마음씀을 말합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성령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경건생활의 초보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달라진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위로 속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신자의 내적 평안을 주는 것으로 난하주에 보면 성령의 후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받은 줄 알고 감사할 때에 실제로 받게 됩니다.

수의 증가 '서 가고' 는 영적으로 교화된 것을 말합니다. 교화된 완전한 신앙생활과 행위가 말씀에 의하여 강력한 힘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증가했습니다(31절). 수적 증가의 외적인 발전은 내적인 성숙,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 더하여지는 동시에 영적 평안도 가하여진 생활로 내적 생명이 풍성해진 데 따르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영력이 빈약한 교회는 신자들의 수의 증가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 평화, 기쁨, 충만이 있는 곳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 모든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일과 위로를 받는 일과 교회가 확장되는 일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 모두의 헌신은 얼마나 큰 부흥과 발전을 가져 오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법이지 방자히 행하는 자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후원)가 있는 곳에 영력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기도 주를 두려워함이 없이 날마다 방자히 행하던 모든 누추함을 용납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뿐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9 : 32)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택하신 귀한 종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이 아주 아름답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가는 곳마다 일감이 생깁니다. 하늘나라는 일하지 않고 누워 있는 곳이 아니라 일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지루함의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할 일이 없어서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일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이 말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꾼으로 준비만 하여 실력있는 일꾼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선한 일에 분주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하느라고 정말 분주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행하느라고 분주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느라고 피곤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선한 일때문에 분주하고 피곤해진 자 그 가 행복자입니다. 일하는 곳마다 하늘 나라를 체험할 것이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엡 2 : 10).

**** 내시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죄는 악한 죄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다니면서 로비하거나 정치꾼이 되서는 안됩니다. 실력을 키우고 준비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일감이 있어 즐거운 비명을 올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입니다. 눈을 바로 뜨고 세상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사방에 널린 것이 일감입니다.

기도 할 일 많은 세상에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때 일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이 되게하시고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월)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 ②

찬송 267 성경, 행 9 : 32-43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9 : 40)

소명감, 사명감 하나님의 일꾼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환경이 나빠서 일을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 성공치 못했다고도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여건도 필요한만큼 갖추어져 있어야 효과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도 있고, 실력있는 사람을 만나야 모든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일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화목해야 일이 잘 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철저한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에 가득 찬 사람은 환경도 여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기독교적 신앙에서 우러나온 행동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건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가로막을 때 환경에 무릎꿇고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베드로는 룻다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룻다는 베냐민 지파의 영지로서 사론 광야의 한 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중환자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8년동안 갇은 수단을 다 하였으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아리랑 노래에는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갈테면 가라, 가다가 발병나면 돌아오겠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잖은 표현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자존심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소극적 행동양식입니다. 로미오는 주리엣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담을 넘어갔습니다. 서양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기독교적 신앙에서 배운 것입니다. 적극적 행동이 없이는 환경이나 여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믿음으로 갖고 뛰어 넘읍시다.

기도 어려운 환경만 날마다 탓하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교회 소속들이가 질서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가로되...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9 : 34)

말씀의 치유 베드로가 환자를 일으킨 것은 청진기를 들고 배를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하는 의학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낮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네 모든 것을 정돈하라'는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고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만 하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행하였던 것처럼 애니아로 하여금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은총의 사용 '일어나라' 병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고치나 일어나는 것은 애니아가 합니다. 애니아는 일어나기도 하고 자리도 정돈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리까지 정돈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발에 힘을 주시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사역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인협력입니다. 8년 동안 남의 도움만 받던 애니아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8년보다 더 오래된 고집과 편견의 중병에서 우리는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평생 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힘을 믿고 일어나는 것만이 나의 할 일입니다.

* * 받은바 은총을 사용해야 됩니다. 엉켜진 주위를 푸는 작업과 정돈하는 작업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앓은뱅이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총을 받고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고도 아직도 누어있는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 주변을 정돈해야 합니다. 영적인 주변과 정신적인 삶의 태도와 발걸음과 일터를 정돈하고 무엇보다 심성을 정돈해야 합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전도대원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날마다 앓은뱅이처럼 앉아서만 버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성령의 힘을 공급하옵소서. 내일 있을 로잔대회에 이종윤 목사님의 강의에 능력을 주시어서 198 개국 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수)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 ③

찬송 344 성경, 행 9 : 32-35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9 : 35)

역사와 열매 하나님의 일꾼은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키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35절). 8년동안 침상에 누어있던 중풍병자가 회복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다(all) 라고 기록할만큼 많은 무리가 주께로 향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적의 효과입니다. 애니아의 사건은 가이사랴까지 30마일의 아름다운 해변을 퍼져나갔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보여줘야 할 권능의 역사를 보여줄 때에 전도가 시작이 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All court pressing 교회는 2차, 3차대전과 같이 사탄과 정면충돌을 해서 all court pressing 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진행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승전보가 들어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전사자도 나옵니다. 그러나 몇명 다쳤다고 해서 전쟁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못맺게 하려고 나무를 줌먹고 잎사귀를 잘라버리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익은 열매를 썩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 여러분의 선행의 소문이 몇집이나 퍼져 나갑니까. 몇사람에게나 퍼져 나갑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몇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떨어진 이삭은 없습니까. 형제, 친척가운데, 이웃에 아직도 줯어오지 못한 이삭이 있다면 모아줍시다. 마땅히 창고에 들어와야 할 알곡이 아직도 버리어져 있다면 창고로 모아들읍시다. 또한 내 자신이 떨어진 이삭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가지 실패했다고 우리의 영적전쟁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 구주 예수님만 믿고 승전합시다.

기도 자신이 천국 알곡이 되지 못하고 빈뚝정이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웃에 늘어진 이삭들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들과 이역만리 떨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복음이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9 : 36)

복있는 여인 도르가는 예수님의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에 힘을 쏟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기쁨을 받았습니다. 인각적으로 보면 도르가는 복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나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여인은 일찌기 과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속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부와 빈민의 이웃이 된 것으로 보아서 거부도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장수도 못한 것으로 보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보아도 복을 받은 여인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복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복된 삶 첫째 도르가의 삶이 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습니다.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출신학교나 출신성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의 어떤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생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모델입니다.

** 예수를 믿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으나 구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이웃이 곤경에 처한 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선행과 구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불우한 이웃에 관심을 쏟고 그들에게 복음을 줄 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 영색은 신자이나 생활에는 불신자가 되지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사는 불신양인들이 교회 종탑을 바라볼 때 마음문이 열려서 자원해서 교회로 나오는 복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금) 도르가가 받은 복 ②

찬송376 성경, 행 9 : 36-43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9 : 37)

복된 죽음 도르가는 삶이 복되었을 뿐 아니라 죽음이 복되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로 죽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왕궁에도 찾아오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도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장수한 사람에게도 오고 갓난아기에게도 옵니다. 죽음을 빗겨갈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모습도 가지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죽어야 됩니다. 살기 위하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위하여도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악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배반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은 여인이요 많은 사람의 애도 속에서 죽은 여인입니다. 잘못 죽으면 죽음의 고개로 넘어서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터이니 이것이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요 무시무시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때의 일입니다.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저녁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공사장에서 쿵하고 터지더니 파편이 날아와서 지붕을 덮쳐 그 가족을 한번에 직사를 시켰습니다. 저녁상 잘받고 가족들과 맛있게 음식상 차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죽음을 맞을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복있는 사람입니다.

******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에 땀감 하나 더 왔구만 하고 귀찮아하시는 죽음을 맞아서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분이 좀더 살았으면 많은 영향을 미쳤을텐데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은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기도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죽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중동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 속히 그곳에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9 : 39)

복된 유산 도르가의 남긴 유산이 또한 복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가전적인 유산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수 지어 놓은, 그들에게 나누어줄려고 준비했다가 미처 나누어주지 못한 속옷과 겹옷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돈 많이 벌어서 병들어도 쓰지 않고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무덤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위한 유산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기는 유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도르가는 또한 후배 성도들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사람을 키워 놓았습니다. 후배들이 많고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도르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 큰 유산입니다.

제2의 삶 도르가는 제2의 삶을 허락받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매였던 종들이었고 죽었던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꿇고 조용히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아들없고 딸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고 자녀를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이 최대의 유산이요 업적입니다. 땅위에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할지 심각한 도전으로 받고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십시오.

기도 물질만 많이 남기기 위해 인간함을 쓰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는 얼마나 힘쓰어야 할지. 믿음의 유산, 선한 이웃들을 위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들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시사 그들을 위해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 (주일) 위대한 모습

찬송 278 성경, 행10: 1 - 8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10 : 2)

문호개방 본문의 내용은 이탈리아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이탈리아부대는 이태리 사람들로 구성된 로마 군인들로 로마인 중의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의 부대장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 군대의 핵심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사람중에 최초인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그리고 개종한 헬라인들이 하나님앞에 모여 왔지만 10 장에는 위대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방인도 복음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모습 고넬료는 매우 복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요 구제를 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도덕적으로 무흠하여 남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그의 가족과 더불어 신앙을 가진 자요 구제를 많이 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멸시하는 점령군의 장교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군인으로서 기도생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때문에 국적을 초월했고 빈부귀천의 벽을 허물었고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 나의 모습이 전혀 나답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모습입니다. 내 지위가 어떠하든 내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옛모습이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생활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적은 액수일 지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도 날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충실히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납하시고 영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지개회(권사회)를 인도하시사 기도의 여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넬료가 맞아 발앞에 엎드리어 절하니」(10:25)

준비된 곳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원인을 몇가지로 찾아보면 첫째로, 준비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24-27, 33). 베드로가 청함을 받아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과, 모든 하인, 자기 온 가족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0 문도가 그냥 오순절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열흘동안 기도하다가 성령강림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앞에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 복대로 받지도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반박에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겸손한 곳 둘째로, 겸손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25-26).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맞아 발앞에 엎드리어 절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군, 그것도 이탈리아 군대의, 가장 정예부대의 장교가 별 볼일 없는 유대 어부에게 발앞에 엎드리어 절했다는 사실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태도는 곧 주님 앞에 꿇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고넬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고넬료의 절을 받을 때에 '어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자이지' 한 것이 아니라 절을 만류하였습니다.

****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마음과 생활을 준비합시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3대 덕성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이 표준형, 스탠다드 모델인줄 알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오니 저희들의 교만을 완파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3, 8이복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김일성의 완고한 교만도 꺾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 (화) 역사가 일어난 곳 ②

찬송 177 성경, 행10:23-48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10:33)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입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모든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말씀을 갈망하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송이꿀보다 더 달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시간 가는줄 모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음식이 제맛이 안납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볼 때는 왜 그렇게 빨리 끝나느냐고 아쉬워하면서도 설교는 30분만 넘어가면 그걸 못하고 시계를 자꾸보고 몸을 꼬기 시작합니다. 말씀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화합의 장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화합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전하려는 열심과 고넬료의 배우려는 열심과 따르려는 열심이 화합을 이루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들이 지진아이면 진전은 없습니다. 지진아들은 열심이 없고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있는 교수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교수도 실력있는 교수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면 전국을 제패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만 잘해서도 안되고 코치만 잘 해도 안되고 이들이 합작이 이루어져야 패권을잡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 재물, 명예, 지위,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갈급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상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고 책상에 꽂아놓고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읽겠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잘났다고 날고 뛰어야 별 볼일 없습니다. 연약해도 함께 힘을 모아야 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보다 못났다고 멸시하지 않고 화합을 이루고 나보다 잘났다고 질시하지도 말고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말씀에 대한 갈급한 영을 부으시고 이웃과 더불어 화합하게 하옵소서. 세계선교회를 지도 하시사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11: 9)

신앙 공동체 세상에는 여러종류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계 각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이 피차에 같지를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공동체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달라도 그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화로운 삶, 형제간에 사랑으로 조화로운 삶, 이해와 협력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같은 목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누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하고 목표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선수 11명은 제각기 자기 기술을 가지고 제각기 나름대로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목표때문에 일심이 되어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구선수와 같아서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습니다.

******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목표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팀웍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내 경험을 고집하거나 내 지식을 앞세우거나 내 주의주장을 관철하려 하면 팀웍은 깨어집니다. 내 경험 이 비록 좋은 것이나 만사에 백효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식이 바다 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는 한알의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내 주의주장이 옳아보여도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름다운 팀웍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기도 늘 외톨이 되어 소외된 감정을 일소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11: 7)

다이나마이트 우리의 췌전에는 날마다 별의별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 전율을 금치 못할 경악의 소문도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 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으니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은 다이나마이트 보다 강력하고 미사일 폭탄보다 강력합니다. 이 복음이 개인의 가슴에 들어오면 개인이 깨어져 버리고 옛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더러운 것들이 소멸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희가 생기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복음에 담긴 힘 이 복음은 민족의 담을, 국가의 담을 넘었습니다(10장, 11 장). 베드로는 별 수 없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세계 제일로 자처하는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과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에만 사람(안드로 포스) 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교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했습니다. 피차에 미워하고 피차에 적대하던 그들에게 복음으로 화합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지역감정도 무너뜨리고 민족간의 갈등도 해소합니다. 국가간의 모든 어려운 관계도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적인 계급, 장벽을 뛰어 넘습니다(11: 7). '각종 짐승' 은 빈부귀천을 말합니다

*** 세상의 난리, 전쟁, 기아, 폭력, 적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에 놀라지 마시다. 이미 이러한 일이 말세에 있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마24 : 3 - 14).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에 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아직도 지역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와 어른, 기성세대와 청년, 가진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든 계층의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 아직도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히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불드시사 복음의 능력으로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11:17)

문화적 장벽 문화란 공동체가 오랜 세월동안 살아가면서 축적한 생활형태를 말합니다. 동양인에게는 동양문화가 있고 서양인에게는 서양문화가 있습니다. 어느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자기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고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려면 오랜 세월을 요하며 완전하게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단번에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헬라문화에 복음이 침투되니 기독교 문화로 변혁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다른 민족에게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현대의 세속문화 현대의 공산주의문화를 복음만이 뚫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벽 흑인이 미국에서 인권을 회복하는데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무차별 학살과 유린과 강탈에 의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인종의 담벽을 뛰어 넘습니다. 또한 복음은 다른종교의 장벽도 넘습니다. 생명이요 생활수단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모슬렘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일본을 세계 수위의 부강국으로 만들었다고 높이 떠받들던 신토이즘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요 이념이요 철학과 사상이며 하나님이던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또한 교회간의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 방문에 대해서 예루살렘교회와 가이사랴교회간에 견해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안에서 같은 주를 믿으며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에 단절과 갈등을 계속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장로교회는 신앙체제가 아니라 행정,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장로교는 장로님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말이고 감리교는 감독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가지 정치형태는 여러 교회를 탄생시켰으며 힘을 분산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다른 교파를 무시하는 경향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이웃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 (토) 확장하는 교회

찬송 277 성경, 행 11 : 19 - 26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 전하는데」 (11 : 19)
지리적 확장 복음은 지리적인 확장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19 절). 흩어진 사람들에게 의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지리적 확장운동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의 센타 복음이 확장될 때에는 센타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지를 통해서 질서있게 확장됩니다. 중심지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복음이 확장되고 그 중심지가 또 다른 중심지로 센타가 옮겨지고 또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복음의 센타였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센타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옮겨갔습니다 (13 : 49 이하). 다음에는 에베소로 (19 : 10 이하), 다음에는 로마로 (28 : 30 - 30) 옮겨갑니다. 복음의 센타가 사도행전의 기록인 로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서반아로 옮겨졌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 온 세계에 영국의 국기가 있는 곳에 해지는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을 남긴 19 세기에 영국이 복음으로 왕성하여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영국군함이 위대해서 국방력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런던 한 모퉁이에 대영성서공회가 자리잡아 전세계의 성경을 프린트해내는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의 센타는 한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시계를 놓고 보면 미국은 저무는 오후 5 시라면 영국은 어두운 밤 10 시가 되고 구라파는 캄캄한 밤 12 시가 되는데 서울은 새벽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신자수는 0.8%, 대만은 5%,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가 다 10% 미만인데 오직 한국만이 20%를 상회한 교세가 되어서 세계 선교 역사에 유사 이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 한국의 서쪽 중공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 인도이고 그 뒤가 아프카니스탄, 그 밑이 예루살렘입니다.

기도 내교회, 내나라만 복을 받고 안주하게 마시고 세계교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농어촌 교회를 축복하시고 벽촌 전도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22)

숫적 성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숫적인 성장이 무슨 복음화 장이냐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24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대개 지도자는 수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우물쭈물 하는 사람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 1:15에는 120명이 모였다고 했고 2:41에는 3천명, 2:47에는 수가 날마다 더해갔고 4:4에는 5천명, 5:14에 계속 증가되어 21:20에 보면 수만명의 유대인 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숫적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교회를 숫적으로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산가족 찾기는 KBS가 했지만 영적 이산가족 찾기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Universal Church 성장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괄시킵니다. 요엘은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예언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White Color (흰 넥타이 맨 사람), working class (노동자), blue class, 모두 들어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직업을 보면 제사장, 마술사, 에디오피아 장관, 여자재봉사, 제화업자, 백부장, 지방총독, 정치가, 장사꾼, 간수장, 철학자, 천막 제조업자, 회당장,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 있는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 교회에서 애찬을 베풀며 교제할 때 여전도회원에게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라고 하면 돈을 낼테니 일하는 사람 사다가 부엌일 시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못 됩니다. 전체교인의 80%가 대학출신이고 70%가 자가용족이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괄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굴하지도 말고 뽐내지도 말고 모든 종족의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기도 나 한사람이 교회의 주요 구성원 인줄 알게 하셨으니 금지를 갖게 하옵소서. 미화부와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11:21)

환란 복음 확장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란의 방법입니다(19절). 환란을 통해 흠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흠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위협을 받는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에 한국에는 이민 붐이 일어났습니다. 뛰고 나는 사람들이 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 취급을 받을만큼 똑똑한 사람보다 이민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100 여개 나라로 다 흠어져 나갔는데 형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 그들을 다 외국으로 흠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문제, 가정문제, 교회문제, 모든 문제의 환란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평신도 다음에는 평신도를 통해 복음이 확장됩니다(20절). 한 동안 KS 마크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음확장에 유익한 것은 규격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비규격품들이 복음확장에 유익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은 평신도에 있습니다.

주의 손 또한 주의 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21절).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나혼자 북치고 장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위에 복음확장을 위하여 함께해야 됩니다.

**** 평화로운 때에 복음을 세계로 수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서라도 세계로 흠으실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기 전에 너도나도 복음확장에 헌신합시다. 복음확장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 활발히 전개됩니다. 주의 힘을 의지하고 복음전선으로 나아갑시다. 백두산의 소나무 찍어 북한에도 충현 지교회 짓고 세계에도 충현교회를 세웁시다.**

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벅어리 입을 열어 주시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민족의 장래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11:24)

피난민의 전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많은 주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까지 피난해온 구브로와 구레네 몇사람의 전도로 안디옥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피난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던 평양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 이남으로 흩어져 내려온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도 피난민들이 설립한 것입니다.

파송 선교사 안디옥 교회설립의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안디옥교회에 목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22절). 교회사의 위대한 한 장면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가 구제와 격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교훈의 아들'입니다. 그는 구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4:37) 가르치기를 잘해서(11:26) 글자 그대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또한 착한 사람이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24절). 그는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게 세워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 피난민들은 자기들의 호구지책에 대한 관심보다도 주의 복음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본업은 복음전도요 부업이 생활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설된 교회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주의 어린양들이 유기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개척된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세계에도 선교사를 속히 파송합니다. 중국과 동남아에 아직도 주의 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기도 크리스찬의 본무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나바(위로, 교훈)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복음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라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11:24)

위대한 지도자 지도자들을 보면 대개는 자기 편당을 만들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한쪽에 서기가 쉬운데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가슴에 안는데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다 한몸으로 안아 주셔서 그에게 보내어 주신 생명들을 더하게 하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바나바는 편당을 만들거나 자기 안전을 위하여 한쪽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제일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숨어있는 바울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후배인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는 부목사의 위치도 즐겨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업적 그의 업적은 세계 선교의 센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잠시 시무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센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유대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수리아의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의 효시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려 할 때 교회에서 골치덩어리인 부목사를 빨리 내보내야 되니 선교사로나 파송해 버리자고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본교회를 위해서 놓기가 아까운 분, 이 분을 빼내면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분, 기둥감 같은 분을 보내었습니다. 그교회 담임인 바나바가 빠지고 훌륭한 설교자 바울이 빠져 나갑니다. 빼낼 수 없는 분을 용감하게 빼내는 것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선교사의 파송원리입니다.

****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편당을 짓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성품을 답습시다. 원수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바나바가 됩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숨어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 세계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더하는 복을 주옵소서. 충현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11:22)

대도시 점령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제국의 3대도시로 알려진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고 바울이 선교지로 향하여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대 도시를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선교전략의 하나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농촌벽지로 들어갑니다. 그는 100년이 지나도 큰 성과가 없고 그 사람의 영향력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가 이렇게 확장된 것은 최초의 선교사들이 큰 도시를 거점으로 했기때문에 한국 전체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자격 구비 동서무역이 맞닿은 중요한 지점이요 로마인 헬라인이 함께 사는 국제도시, 기독교 선교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교회는 참으로 복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역자를 잘 만나야 복된 교회이고 교역자는 교인을 잘 만나야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에서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피차에 자기 몸을 깎듯이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그들은 세계 선교센타를 만들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교회요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요 자격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교인과 교역자가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 선교사만 많이 파송한다고 일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파송받은 자와 파송하는 자가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파송받은 선교사가 본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본부가 선교사를 불신하고 무관심해서도 안됩니다. 생명을 내걸고 오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배후에서는 기도의 원거리포를 쏘아야 합니다. 그들이 일용할 생활비도 보내야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비도 보내야 합니다. 너무 단시일 내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기도 군에 보낸 자식을 위하여는 매일 기도하면서 사지에 보낸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는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서만수, 윤태곤, 엘리야겔간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불드신사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 (금) 바나바의 목회사역

찬송 268 성경, 행11:25-26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있어」(11:26)

새일꾼 등용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는 새일꾼을 등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의 과거 경력때문에 비록 새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헌신의 결의를 하였을 때 오히려 멀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보다도 현재를 보았고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았으며 사람을 키워주고 자기는 양보할줄 아는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나바야말로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세계 선교를 위해 새로운 일꾼을 등용할 줄 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력 축적 바나바는 또한 세계선교를 위해 새로운 실력을 축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일을 하든 실력이 없으면 얼마 동안은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 굴러갈런지 모르나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오래 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대개 그 교회의 목사의 영력이나 분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확장을 위해서 실력을 든든히 쌓았습니다. 그들은 양적인 증가로 교인수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24절). 또한 질적으로 충분한 실력을 쌓았습니다(26절). 그들은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잘 훈련된 성도 한사람은 훈련없는 열 사람보다 힘이 있습니다. 잘 훈련받은 일개 사단은 백만의 오합지졸 보다 훨씬 강합니다.

**** 나 한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교회의 수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회에 붙여야 합니다(히3:12). 미국의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20분 회담하니 세계가 뒤집힙니다. 하던 전쟁은 끝나고 안하던 전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20분 면담하면 우주가 흔들릴 것입니다.

기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실력있는 일꾼되어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이준교, 육호기, 김재창, 안석렬 선교사님들을 붙드시사 애굽, 독일, 파라과이가 큰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11:26)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였습니다(2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비웃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예수를 닮았으면 예수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생활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된 것입니다. 이웃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비도덕적인 교회로 전락한 교회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교회가 도덕성조차도 상실해 버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형편없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줄 모른다면 누가 신임을 하겠습니까. 전도의 길도 막힙니다.

신행일치 안디옥교회는 높은 도덕성과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불을 꺼서 말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나나는 예루살렘에서나 안디옥에서 빛을 비쳐주고 향기를 날려주는 아름다운 목회자요 신자의 모델이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뿌리만 있고 열매가 없어도 걱정이요 뿌리없는 곳에 열매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행일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2:24-26)

*** 사마리아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여리고 골짜기에서도 선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무위도식하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조그만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남겨드리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총애와 국민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할 일이 없어 놀거나 하기 싫어 놀거나 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고 적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유재일, 김주경 선교사님, 박행렬, 선교사님을 불드시고 국경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 (주일) 재앙을 극복하는 길 ①

찬송 348 성경, 행11 : 27-30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11 : 28)

만가지 재앙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알고 모르고, 크고 작은 재앙들이 수없이 닥쳐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재 지변에 의한 재앙, 사람으로부터 오는 재앙, 자신으로부터 일으키는 재앙도 있습니다. 수재, 한재, 충재, 풍재, 역재, 전재까지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 다행스럽게 가볍게 스쳐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책임완수 재난에 대처하려면 우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선지자 아가보는 흉년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28절). 이것은 재앙에 대비케 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가보는 달디단 내용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쓰디 쓴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쓰든 달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가혹한 처사가 될까봐 적당히 얼버무리고 감상주의적 태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위협과 공갈 앞에 떨면서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함구해 버리는 비겁한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평안을 팔아서(렘 6 : 14) 대중의 환영만을 노리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도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무유기와 배임행위입니다.

****** 한 사람에게는 여러가지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신분에 따르는 여러가지 책임을 골고루 감당하고 계신지요. 특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책임도 무시해선 안됩니다(사50 : 4). 책임중에 어려운 책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견책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다같이 구원할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방관하면 비겁자가 될 것이요 유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배임행위가 될 것입니다. 권면하고 견책하되 사랑으로 합시다.

기도 자신에게 어떤 누추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누추함도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불의를 갖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11:29)

실천이 힘 재앙에 대처하는 두번째 길은 아는데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교회는 평소에 절약했던 곡식으로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29절). 지식도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식도 무력할 뿐입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었으니 안디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하여 부조를 보냈습니다. 십시일반은 보내는 자는 적은 것이나 받는 자에게는 큰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음은 알지못함만 못하고 듣고도 행치 않음은 모래위에 집을 지음만 같습니다. 야고보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귀만 높아서는 안됩니다. 귀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일백마디의 빈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합니다.

힘대로 하라 재앙을 극복하는 세번째 길은 힘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힘은 있으나 도울 마음이 없어 구실과 핑계만 하는 것도 어렵고 도울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힘을 과시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도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인간편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주님의 손에 잡힐 때에는 놀라운 능력이요 봉사요 열매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만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앙을 극복하는 또 한가지의 길은 받아야 할 처지에서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재앙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 힘은 있으나 도울 마음이 없는 자를 인색한 자라고 하며 핑계하고 우물쭈물하는 자를 비겁자라 합니다. 힘을 과시하며 허세만 부리는 자를 교만한 자, 불성실한 자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다행스럽게 이 세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하되 힘대로 하고, 받기를 원치 말고 주고자 하며 남을 돕는 것을 지당한 일로 여기는 아름다운 신행일치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힘겨우면 둘이서나 셋이서 합시다.

기도 나 가진 적은 것 보지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튼겨지는 광경을 보게 하소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겨웁도록 하게 하소서. 충현교회는 교육, 선교와 함께 구제에 힘쓰고 교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1 (토) 자기중심기
 - 2 (주일) 자아붕괴기
 - 3 (월) 새로운 자아탄생기
 - 4 (화) 전도자 사울
 - 5 (수) 유대인의 반응
 - 6 (목) 변화된 사울
 - 7 (금) 죽으면 죽으리라
 - 8 (토) 부흥일로
 - 9 (주일)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 ①
 - 10 (월)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 ②
 - 11 (화) 신인협동
 - 12 (수)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 ③
 - 13 (목) 도르가가 받은 복 ①
 - 14 (금) 도르가가 받은 복 ②
 - 15 (토) 도르가가 받은 복 ③
 - 16 (주일) 위대한 모습
 - 17 (월) 역사가 일어난 곳 ①
 - 18 (화) 역사가 일어난 곳 ②
 - 19 (수) 팀월
 - 20 (목) 복음의 능력 ①
 - 21 (금) 복음의 능력 ②
 - 22 (토) 확장하는 교회
 - 23 (주일) 성장하는 교회
 - 24 (월) 복음화의 방법
 - 25 (화) 바나바의 사역
 - 26 (수) 세계선교의 효시
 - 27 (목) 선교전략
 - 28 (금) 바나바의 목회사역
 - 29 (토) 그리스도인
 - 30 (주일) 재앙을 극복하는 길 ①
 - 31 (월) 재앙을 극복하는 길 ②
-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